

***에비노인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 실내마감재 및 색채에 대한 선호

Preference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nd Colors in Senior Congregate Housing according to Pro-senior people

홍이경* / Hong, Yi-Kyung
오혜경** / Oh, Hye-Kyung

Abstract

Since Korea has already become the 'aging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come the 'aged society' by 2019, development of the facilities and dedicated housing for the senior citizens have become the key issues. The growing population of the senior citizens, changed in the social structure, family type, and the way of living brings a moment to consider the various aspects to support the senior citizens. Now the situation in Korea requires development of congregate housing as a type of residential units for elder who can live at home with some hel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preference tendency on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nd colors of the congregate housing for the senior citizens who are healthy enough not needing the nursing home. For this research, the preference of 500 Korean pre-senior citizens on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nd colors of congregate housing for the seniors was investigate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using SPSS 10.0 for Windows regard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Chi-squared test with cross tabu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bout 60%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Korean traditional interior image for individual units, and modern interior image for common areas. Second, the respondents preferred wood flooring and wallpaper interior finishing. Third, the respondents preferred Y, YR color for individual units, and N color for common areas and very pale tone for all spaces. Fourth, the respondents preferred luxury finishing to living room in the all spaces.

키워드 : 노인공동생활주택, 실내마감재, 색채, 선호

Keywords : senior congregate housing,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color, preference

1. 서론

21세기의 탈근대사회에 노출된 노후생활은 은퇴기간의 확대로 인해 제3의 연령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 졌으며 이에 대한 노후의 공간 환경의 의미와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시설이 아니면서 노인생활을 지원하는 주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상류층을 위한 유료양로시설이나 영서민을 위한 무료, 실비 양로원 혹은 요양원의 개념이 아닌 중산층용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들(홍형욱; 1999; 2001a; 2001b, 홍형욱, 유병선; 2003, 홍형욱, 지은영; 2004)에서는 노인공동생활

주택을 그 대안의 하나로 제안하여 왔으며 영국의 보호 주택(sheltered housing), 미국의 노인공동주택(congregate housing), 생활지원주택(assisted living), 일본의 실버하우징(silver housing), 시니어하우스(senior house)를 모델로 하고 있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요양원(nursing home)에 갈 필요가 없는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 중의 하나로 노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사교·여가 프로그램, 생활지원서비스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리인, 공용공간, 공동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관리인실, 공동부엌과 식당, 공동거실 등의 공용공간과 노인의 전용공간인 개별공간이 계획되며 공동출입구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이 한 곳에서 통제된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있으며 노인을 배려한 설계지침(barrier free)이 반영된 주택으로 계획된다.

이러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노인의 특성과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박사 후 연구원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 이 논문은 2005년도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요구를 반영한 주택의 계획이 필수적이다. 즉,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시력, 청력, 근육의 운동능력 등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식사, 옷입기, 침구 정돈, 시장 보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실내환경에는 이러한 특성의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이동성이 줄어들어 외부보다도 실내공간이 생활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실내환경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택의 개발시 신체적 노화로 사물의 구분이나 방향감각, 공간인지가 떨어지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여러 계획요소 중 특히 실내를 구성하는 마감재들은 그 색채나 재질 등의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노인들에게 기능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원하는 실내 마감재로나 이에 대한 제공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색채는 노인들이 사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계획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노인을 위한 주거 실내환경 선호에 관한 선행연구들(오찬옥,이연숙;1993, 대한주택공사;1995, 김태일;1995, 박근형, 양우현;1996, 홍형욱;2001, 신영숙;2001, 홍형욱,지은영;2002, 서기영,이진혁;2002)에서는 주택의 형태나 규모, 각 실의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내를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선호연구는 미흡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 실내마감재 및 색채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매우 시급한 부분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그리고 노인의 감성에 근접한 아늑하고 정겨운 공간의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리라 기대된다.

2. 연구의 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노인층(50-59세) 5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표집시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고른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선 지역을 강남, 강북으로 구분하여 이들간 비율이 유사하도록 하였고 주거형태별로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 연립이나 상가건물의 순으로 의도 표집하였다.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는 우리나라가 2019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주된 수요계층이기 때문으로 이들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선호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지침에 활용하고, 실제 계획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분위기, 실내마감재, 실내색채에 대한 문항으로 된 조사표이다. 우선 실내분위기는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의 선호분위기에 대한 문항과 실내마감재의 문양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내마감재는 공간별 실내마감재, 고급실내마감재 사용, 마감재공방식에 대한 선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색채는 공간별 선호색채를 파악하였는데, 이를 선호색상과 색조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색채시스템인 『I.R.I Hue&Tone120』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IRI연구소에서 산업자원부 지원 산업기반 기술산업으로 개발된 색채분석도구¹⁾로서 120색의 색표를 구성하여 실제 색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4cm x 4cm크기로²⁾ 자른 색표를 보드로 제작하여 조사에 사용하였다.

2.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2003년 11월 20일-12월 2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들이 직접 설문문항을 설명하고 응답을 기입하는 조사표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0.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간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과 입주자 전용의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별 실내마감재 및 색채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였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경제적 특성과 주거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노후예상소득, 직업을 조사하였는데, 연령은 50

1)이는 Munsell, ISCC-NBS, NCD 체계를 기초로 하면서 한국인의 색채 감성과 디자인에서의 활용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개발된 체계이다. 색채계는 면셀표색계를 바탕으로 하여 유채색은 기본 10색상(5R, 5YR, 5Y, 5GY, 5G, 5BG, 5B, 5P, 5RP)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무채색 10색을 추가하였다. 유채색 10색상별로 명도와 채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11톤으로 구성하여 110색이고, 무채색은 명도단계에 따라 흰색에서 검정까지 10단계로 구성하여 10색으로 총 120개의 색표가 제시되어 있다.

2)조성희·주서령·김문덕·김인혁(2002)는 학교시설의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ASTM규격에 따라 실제 색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인 4cmx4cm 크기로 제작된 색표를 사용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대 전반이 61.2%, 50대 후반이 38.8%로 평균연령이 53.7세이며 성별은 남자가 46.8%, 여자가 53.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3.8%, 중졸이하가 58.6%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370만원이었고 노후에 예상되는 소득은 평균 192만원으로 월평균 소득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노후에 가족수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로 소득원이 감소되는 원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 26.0%로 가장 많았으나 전업주부와 사무직이 21.6%, 기타 17.8%, 전문경영직 13.0%로 각 분류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주거특성은 예비노인층의 현재주거상황에 대한 것으로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기간,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5.2%, 기타 연립이나 상가건물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22.6%였다. 소유형태는 자가 85.0%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규모는 평균 33.6평으로 30평이상-40평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고 20평이상-30평미만이 33.8%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평균 7년 1개월로 1년-5년미만이 44.6%로 많았으나, 10년 이상도 28.4% 조사되었고 거주지역은 강북이 59.4%, 강남 40.6%로 표집되었다.

3.2. 실내분위기에 대한 선호

(1)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

한국 예비노인들이 선호하는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는 한국 고전적인 분위기가 60.2%로 가장 많았고, 현대적인 분위기 31.8%, 서양고전적인 분위기가 8.0%였다.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개별공간에 한국 전통적인 분위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옛것에 대한 향수가 예비노인들에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현대적인 분위기에 대한 선호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개성적이면서 현대적인 실내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에 대한 선호 (N=500)

| 구분 | | 빈도(%) |
|----------------|------------|-----------|
|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 | 한국고전적인 분위기 | 301(60.2) |
| | 서양고전적인 분위기 | 40(8.0) |
| | 현대적인 분위기 | 159(31.8) |

따라서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로 한국고전적인 분위기, 현대적인 분위기에 대한 유형별 모델이 개발되어 거주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용공간의 실내분위기

예비노인들이 선호하는 공용공간의 실내분위기는 개별공간의 선호분위기와 대조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현대적인 분위기가 61.4%로 가장 많았고, 한국 고전적인 분위기 28.0%, 서양고전적인 분위기가 10.4%였다. 이는 개별공간에서의 선호결

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개별공간에서는 한국적인 실내분위기를 가장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분위기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양고전적인 분위기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조사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각 공간별로 선호하는 실내분위기에 대한 차별화된 실내코디네이션이 계획되어야 하며 현대적인 분위기와 한국고전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내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2> 공용공간의 실내분위기에 대한 선호 (N=499)

| 구분 | | 빈도(%) |
|----------------|------------|-----------|
| 공용공간의 실내분위기 | 한국고전적인 분위기 | 140(28.0) |
| | 서양고전적인 분위기 | 52(10.4) |
| | 현대적인 분위기 | 307(61.4) |

(3) 마감재의 문양

예비노인들이 선호하는 마감재의 문양으로는 한국 전통문양 46.0%, 무늬없는 단색 30.4%, 꽃이나 식물문양 15.4%, 스트라이프 5.0%, 추상적인 문양 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예비노인들은 주로 한국 전통문양과 무늬없는 단색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관용(2003)³⁾이 체크무늬가 노인들에게 시각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양의 선정시 노인의 심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표 3> 마감재의 문양에 대한 선호 (N=500)

| 구분 | | 빈도(%) |
|---------|----------|-----------|
| 마감재의 문양 | 스트라이프 | 25(5.0) |
| | 꽃이나 식물문양 | 77(15.4) |
| | 기하학문양 | 30(6.0) |
| | 한국전통문양 | 230(46.0) |
| | 무늬없는 단색 | 152(30.4) |
| | 추상적인 문양 | 13(2.6) |

3.3. 실내마감재료에 대한 선호

노인공동생활주택 실내디자인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 공간별 실내마감재료와 마감재의 문양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실내마감재료는 특히 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입주자, 방문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선호하는 마감재료는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실내구성요소에 따라 바닥과 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천장은 보통 벽과 같은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두 요소에 대해서만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3)이관용, 노인건축-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진사, 2003.

(1) 개별공간별 실내마감재료

개별공간의 실내마감재료에 대한 선호는 바닥재와 벽마감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바닥재를 살펴보면, 침실의 경우 선호하는 마감재료는 장판이 5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목마루 28.2%, 카펫 7.6%, PVC합성제품 5.8%의 순이었다. 거실의 경우는 원목마루가 68.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장판 14.6%, 카펫이 9.0%로 나타났다. 욕실은 타일이 8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돌(석재) 12.2%, 그 외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물을 쓰는 공간으로서 욕실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이 선호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부엌은 거실과 유사한 선호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원목마루 50.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PVC합성제품 20.6%, 장판 17.8%로 다른 공간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오찬옥, 박수빈, 김석태, 양세화(2003)⁴⁾의 아파트 실내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실내마감재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침실의 경우 한지장판, 원목마루, PVC합성제품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거실에서는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 높게 나타나 거실의 마감재로 원목마루나 이와 같은 이미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거주자의 선호를 충족시켜 주는 방안의 하나라고 본다. 부엌의 마감재료는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욕실의 경우도 타일에 대한 선호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바닥 재료에 대한 선호는 지역, 연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호하고 있는 재료에 있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마감재는 노인의 신체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미끄럼방지 처리나 색상대비, 명도대비 등을 통한 마감재의 선택이 이에 해당된다.

<표 4> 개별공간별 바닥재에 대한 선호

| 개별공간 바닥재 | 침실 | 거실 | 욕실 | 부엌 |
|-------------|------------|------------|------------|------------|
| 장판 | 282(56.4) | 73(14.6) | 5(1.0) | 89(17.8) |
| 원목마루 | 141(28.2) | 343(68.6) | 13(2.6) | 253(50.6) |
| PVC합성제품 | 29(5.8) | 29(5.8) | 12(2.4) | 103(20.6) |
| 타일 | 2(0.4) | 3(0.6) | 404(80.8) | 22(4.4) |
| 돌(석재) | 8(1.6) | 7(1.4) | 61(12.2) | 17(3.4) |
| 카펫 | 38(7.6) | 45(9.0) | 5(1.0) | 16(3.2) |
| 계 | 500(100.0) | 500(100.0) | 500(100.0) | 500(100.0) |

다음으로 벽마감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침실의 경우 벽지가 94.6%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페인트 3.0%, 그 외의 재료

4) 박희진·양세화·오찬옥,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36호. 2003, p.49

에 대해서는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 부엌 공간에서도 침실과 유사하게 벽지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욕실에서는 타일에 대한 선호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개별공간별 벽마감재에 대한 선호

| 개별공간 벽재 | 침실 | 거실 | 욕실 | 부엌 |
|------------|------------|------------|------------|------------|
| 벽지 | 473(94.6) | 437(87.4) | 32(6.4) | 304(60.8) |
| 페인트 | 15(3.0) | 34(6.8) | 56(11.2) | 72(14.4) |
| 회벽 | 11(2.2) | 22(4.4) | 89(17.8) | 38(7.6) |
| 타일 | 1(0.2) | 2(0.4) | 314(62.8) | 78(15.6) |
| 돌(석재) | 0(0.0) | 5(1.0) | 9(1.8) | 8(1.6) |
| 계 | 500(100.0) | 500(100.0) | 500(100.0) | 500(100.0) |

결국 예비노인들은 선호하는 실내마감재료로 현재의 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와 유사한 재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집과 같은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용공간별 실내마감재료

공용공간의 실내마감재료에 대한 선호도 바닥재와 벽마감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바닥재를 살펴보면, 로비의 경우 선호하는 마감재료는 돌(석재) 46.0%, 카펫 14.4%, 원목마루 10.0%의 순이었다. 공동식당은 원목마루 27.2%, 돌(석재) 21.0%, PVC합성제품 20.0%로 재료별로 비슷한 선호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공동거실은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비율이 50.2%로 다른 공간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고 PVC합성제품과 카펫이 각각 14.8%로 조사되었다. 활동실도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아 개별공간에서처럼 주택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재료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로비의 경우 돌(석재)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어 다른 공간과 다르게 조사되었다. 이는 석재가 가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으로 생각되며, 주택의 전체출입구에 해당되는 로비부분을 고급스럽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용공간의 바닥재료에 대해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바닥재료의 선정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비닐이 더 선호되고, 환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환자와 그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면에서는 카페트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2000; 이관용(2003), 재인용)⁵⁾ 그러나 한국의 경우 카페트보다는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예비노인들이 카페트의 위생문제와 청소문제를 생각한 결과로 판단된다.

5) 이관용, 노인건축-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진사, 2003

<표 6> 공용공간별 바닥재에 대한 선호

| 공용공간 바닥재 | 로비 | 공동식당 | 공동거실 | 활동실 |
|-------------|------------|------------|------------|------------|
| 장판 | 37(7.4) | 64(12.8) | 53(10.6) | 71(14.2) |
| 원목마루 | 95(10.0) | 136(27.2) | 251(50.2) | 210(42.0) |
| PVC합성제품 | 43(8.6) | 100(20.0) | 74(14.8) | 95(19.0) |
| 타일 | 23(4.6) | 62(12.4) | 12(2.4) | 9(1.8) |
| 돌(석재) | 230(46.0) | 105(21.0) | 36(7.2) | 52(10.4) |
| 카펫 | 72(14.4) | 33(6.6) | 74(14.8) | 63(12.6) |
| 계 | 500(100.0) | 500(100.0) | 500(100.0) | 500(100.0) |

다음으로 선호하는 벽 마감재를 살펴보면, 로비의 경우 페인트 38.4%와 벽지 34.2%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공동식당에서는 벽지 39.6%, 페인트 33.6%, 공동거실에서는 벽지 61.0%, 페인트 23.0%였고, 활동실도 벽지 55.4%, 페인트 29.2%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공간 대부분 벽지나 페인트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았다.

<표 7> 공용공간별 벽 마감재에 대한 선호

| 공용공간 벽재 | 로비 | 공동식당 | 공동거실 | 활동실 |
|------------|------------|------------|------------|------------|
| 벽지 | 171(34.2) | 198(39.6) | 305(61.0) | 277(55.4) |
| 페인트 | 192(38.4) | 168(33.6) | 115(23.0) | 146(29.2) |
| 회벽 | 94(18.8) | 95(19.0) | 67(13.4) | 69(13.8) |
| 타일 | 9(1.8) | 31(6.2) | 8(1.6) | 6(1.2) |
| 돌(석재) | 34(6.8) | 8(1.6) | 5(1.0) | 2(0.4) |
| 계 | 500(100.0) | 500(100.0) | 500(100.0) | 500(100.0) |

개별공간에서 벽지에 대한 선호가 대부분이었던 점에 비해 공용공간에서는 페인트에 대한 선호비율이 벽지에 대한 비율과 비슷하거나 혹은 높아(로비공간) 이들공간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마감재료에 대한 선호는 벽지가 좀 더 개인화된 공간에서 선호되는 재료임을 보여주며 공용공간 중에서도 공동거실의 경우 벽지에 대한 비율이 다른 공간에 비해 높았고, 좀 더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로비공간에서는 오히려 페인트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공용공간의 기능에 따라 선호재료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실내마감 제공방식에 대한 선호

다음으로 개별공간의 실내마감 제공방식에 대한 예비노인층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선호하는 실내마감 제공방식으로는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 56.8%, 마감재를 직접 선택하여 꾸밀 수 있는 방식 43.2%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이거나 마감재를 직접 선택하여 꾸밀 수 있는 방식 각각에 대해 예비노인층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박희진, 양세화, 오찬욱(2003)⁶⁾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6 박희진·양세화·오찬욱,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36호, 2003, p.50.

<표 8> 개별공간의 실내마감 제공방식에 대한 선호

(N=500)

| 구분 | | 빈도(%) |
|-----------------------|-------------------------|-----------|
| 개별공간의 실내마감 제공방식 |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 | 284(56.8) |
| | 마감재를 직접 선택하여 꾸밀 수 있는 방식 | 216(43.2) |

실내마감제공방식별 관련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과 주택규모에 따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도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과 직접 선택하는 방식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100-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에서도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표 9> 관련변인별 개별공간의 실내마감 제공방식에 대한 선호

(N=500)

| 변수 | 항목내용 | 개별공간의 실내마감 제공방식 | | | χ ² |
|-------|-------------|------------------|-------------------------|------------|----------------|
| | |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 | 마감재를 직접 선택하여 꾸밀 수 있는 방식 | 계 | |
| 소득 | 200만원 미만 | 38(56.7) | 29(43.3) | 67(100.0) | 14.99** |
| | 200-300만원미만 | 55(49.1) | 57(50.9) | 112(100.0) | |
| | 300-400만원미만 | 84(71.8) | 33(28.2) | 117(100.0) | |
| | 400만원 이상 | 107(52.5) | 97(47.5) | 204(100.0) | |
| | 전체 | 284(56.8) | 216(43.2) | 500(100.0) | |
| 주택 규모 | 20평미만 | 13(43.3) | 17(56.7) | 30(100.0) | 13.46** |
| | 20-30평미만 | 154(64.4) | 85(35.6) | 239(100.0) | |
| | 30-40평미만 | 84(53.8) | 72(46.2) | 156(100.0) | |
| | 40평이상 | 33(44.0) | 42(56.0) | 75(100.0) | |
| | 전체 | 284(56.8) | 216(43.2) | 500(100.0) | |

** $p<.01$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규모가 가장 작거나(20평 미만) 가장 큰 경우(40평 이상)에는 마감재를 직접 선택하여 꾸미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반면에,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의 경우는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과 주택규모는 거주자의 경제력에 관계된 변인들이지만 소득과 주택규모에 따른 내부마감의 제공방식에 뚜렷한 일련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마감 제공의 두 가지 방식인 모두 제공되는 방식과 직접 선택하여 꾸밀 수 있는 방식을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고급화에 대한 선호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이 개발될 때 개별공간에서 거주자가 마감재나 설비, 가구 등을 가장 고급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공간으로는 거실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침실 40.0%, 부엌 6.0%, 욕실 5.8%, 현관 0.8%의 순으로 나타나 거실과 침

실에 대한 고급화 경향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실이 손님접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으로 고급스럽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고급화를 원하는 개별공간에 대한 선호 (N=500)

| 구분 | 빈도(%) |
|----------------------|--------------|
| 고급화를 원하는 개별공간에 대한 선호 | 침실 200(40.0) |
| | 거실 237(47.4) |
| | 부엌 30(6.0) |
| | 욕실 29(5.8) |
| | 현관 4(0.8) |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는 부엌에서의 가사일이 축소되거나 가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부엌에서의 생활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반면,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고급형으로의 개발시 고급 마감재나 설비, 가구 등을 고급화하는 공간으로 거실과 침실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관련변인별로 고급화를 원하는 개별공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자는 개별공간에서 고급화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거실, 여자는 부엌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대부분 가사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길은 공간에 대한 고급화 욕구가 선호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따라 고급화를 원하는 공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200만원 미만의 경우 침실, 300-400만원 미만은 욕실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거실을 고급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나타났다. 소득변인은 개별공간의 내부마감방식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인으로 소득에 따라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될 때 특히 이러한 마감재료의 선택과 고급화공간에 대한 의견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관련변인별 개별공간에서의 고급화공간에 대한 선호 (N=500)

| 변수 | 항목내용 | 개별공간에서의 고급화 공간 | | | | | 계 | x2 |
|----|-------------|----------------|-----------|---------|----------|--------|------------|---------|
| | | 침실 | 거실 | 부엌 | 욕실 | 현관 | | |
| 성별 | 남 | 89(38.0) | 125(53.4) | 5(2.1) | 12(5.1) | 3(1.3) | 234(100.0) | 16.35** |
| | 여 | 111(41.7) | 112(42.1) | 25(9.4) | 17(6.4) | 1(0.4) | 266(100.0) | |
| | 전체 | 200(40.0) | 237(47.4) | 30(6.0) | 29(5.8) | 4(0.8) | 500(100.0) | |
| 소득 | 200만원미만 | 30(44.8) | 26(38.8) | 6(9.0) | 5(7.5) | 0(0.0) | 67(100.0) | 25.68* |
| | 200-300만원미만 | 44(39.3) | 51(21.5) | 5(4.5) | 10(8.9) | 2(1.8) | 112(100.0) | |
| | 300-400만원미만 | 48(41.0) | 48(41.0) | 7(6.0) | 12(10.3) | 2(1.7) | 117(100.0) | |
| | 400만원이상 | 78(38.2) | 112(54.9) | 12(5.9) | 2(1.0) | 0(0.0) | 204(100.0) | |
| | 전체 | 200(40.0) | 237(47.4) | 30(6.0) | 29(5.8) | 4(0.8) | 500(100.0) | |

* p<0.05 ** p<0.01

다음으로, 공용공간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 공간으로는 공동거실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식당 16.6%, 로비 12.4%, 활동실 11.4%로 나타나 공동거실에서의 고급화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그 외 공간에 대해서는 비슷

한 선호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2> 고급화를 원하는 공용공간에 대한 선호 (N=500)

| 구분 | 빈도(%) |
|----------------------|----------------|
| 고급화를 원하는 공용공간에 대한 선호 | 로비 62(12.4) |
| | 공동식당 83(16.6) |
| | 공동거실 298(59.6) |
| | 활동실 57(11.4) |

이를 개별공간에서의 고급화 공간과 비교해 보면, 개별공간에 있어서도 거실에 대한 고급화 경향이 가장 높아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간에 대한 고급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로비공간에 대한 고급화의 경향은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어 선호하는 마감재료로 석재를 선호했던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거실에 대한 고급화의 경향이 뚜렷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선호하는 로비공간의 바닥재로 예비노인들은 기존의 노인시설이나 주택의 현관에서 인조대리석, 타일 등 비교적 저가의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3> 관련변인별 공용공간에서의 고급화공간에 대한 선호 (N=500)

| 변수 | 항목내용 | 공용공간에서의 고급화 공간 | | | | | 계 | x2 |
|----|-------------|----------------|----------|-----------|----------|------------|----------|----|
| | | 로비 | 공동식당 | 공동거실 | 활동실 | 계 | | |
| 소득 | 200만원 미만 | 8(11.9) | 14(20.9) | 28(41.8) | 17(25.4) | 67(100.0) | 32.61*** | |
| | 200-300만원미만 | 17(15.2) | 15(13.4) | 65(58.0) | 15(13.4) | 112(100.0) | | |
| | 300-400만원미만 | 11(9.4) | 26(22.2) | 65(55.6) | 15(12.8) | 117(100.0) | | |
| | 400만원 이상 | 28(12.7) | 28(13.7) | 140(68.6) | 10(4.9) | 204(100.0) | | |
| | 전체 | 62(12.4) | 83(16.6) | 298(59.6) | 57(11.4) | 500(100.0) | | |

*** p<.001

관련변인별로 고급화를 원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공동거실에, 300-400만원 미만은 공동식당에, 200만원 미만은 활동실에 대한 기대비율이 높아 소득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소득은 개별공간에서 고급화를 원하는 공간에서도 유의미한 변수로 성별, 소득이 조사되어 소득은 개별공간, 공용공간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5) 고급 실내마감재 사용

고급 실내마감재 사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고급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2%, 좋은 분위기보다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9.8%로 조사되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즉 실내마감재의 사용에 있어 예비노인들은 심미성과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비슷한 응답을 나타내어 이들 각각에 대한 대안모델이 계획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4> 관련변인별 고급실내마감재 사용에 대한 선호 (N=500)

| 항목내용 | 고급 실내마감재 사용 | | | x2 |
|-------|---------------------------|---------------------|-----------|------------|
| | 고급마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추구 | 좋은 분위기보다 저렴한 재료를 사용 | 계 | |
| 빈수 | | | | |
| 소득 | 200만원 미만 | 29(43.3) | 38(56.7) | 67(100.0) |
| | 200-300만원미만 | 45(40.2) | 67(59.8) | 112(100.0) |
| | 300-400만원미만 | 57(48.7) | 60(51.3) | 117(100.0) |
| | 400만원 이상 | 120(58.8) | 84(41.2) | 204(100.0) |
| | 전체 | 251(50.2) | 249(49.8) | 500(100.0) |
| 주택 규모 | 20평미만 | 9(30.0) | 21(70.0) | 30(100.0) |
| | 20-30평미만 | 109(45.6) | 130(54.4) | 239(100.0) |
| | 30-40평미만 | 87(55.8) | 69(44.2) | 156(100.0) |
| | 40평이상 | 46(61.3) | 29(38.7) | 75(100.0) |
| | 전체 | 251(50.2) | 249(49.8) | 500(100.0) |

** p<.01

특히 심미적 특성에 관해서, Lawton(1980)⁷⁾은 노인주거환경 계획의 주된 디자인 고려사항 중 하나로 미적고려(Aesthetic Consideration)를 제안하였고, Regnier & Pynoos(1992)⁸⁾도 미관(Aesthetic Appearance)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심미적 특성은 경제성과 함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중요한 개념이 된다.

또한 관련변인별로는 소득, 주택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이 400만원이상인 경우 고급마감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추구하는 심미성의 경향을 두드러졌고, 200-300만원미만, 200만원 미만의 중, 저소득의 경우 좋은 분위기보다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제성의 성향이 높아 소득이 고급화인식에 대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규모가 40평이상인 경우 심미성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30평 미만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 소득과 함께 주택의 규모도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시 이러한 심미성과, 경제성 두 가지 개념에 따른 차별화된 모델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3.4. 색채에 대한 선호

예비 노인층의 색채에 대한 선호를 색상과 색조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1) 개별공간별 색채

예비노인층의 개별공간별 색채에 대한 선호를 색상과 색조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각 개별공간별 선호색상을 살펴보면, 침실에서의 선호색상은 노랑(Y) 19.7%, 주황(YR) 19.5%, 빨강(R) 18.5%로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무채색(N) 12.4%이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색상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적은 빈도로 조사되어 난색계열에 대한 뚜렷한 선호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침실의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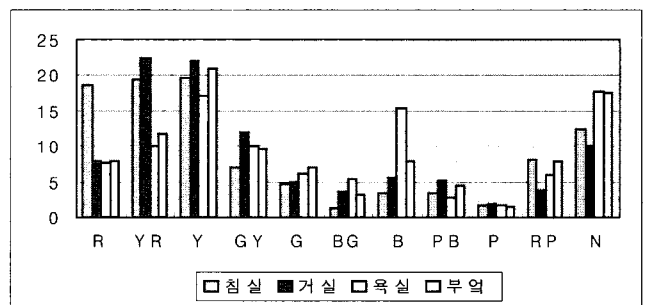
으로 따뜻한 색채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실에서 선호색상은 침실에서와 비슷한 선호경향을 나타내었다. YR(22.5%), Y(22.1%)로 역시 난색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R계열은 침실에 비해 적었던 반면, GY계열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GY계열은 중성적인 색온도를 가지면서 즐겁고 기분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거실에서의 색상으로 YR, Y, GY계열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욕실에서의 선호색상은 N(17.7%), Y(17.1%), B(15.3%), YR, GY(10.0%)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공간에 비해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른 공간에 비해 무채색 계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B계열이나 GY계열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다. 사용빈도가 높은 욕실에 대한 색채는 청결함을 주면서 산뜻함이 느껴지는 색채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노인층들은 이러한 색상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엌에서의 선호색상은 Y(20.9%), N(17.5%), YR(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실에서처럼 N계열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물을 쓰는 공간에서 예비노인층들은 깔끔함과 청결함을 줄 수 있는 N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색상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과 비슷하게 Y, YR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그림 1> 개별공간별 색상에 대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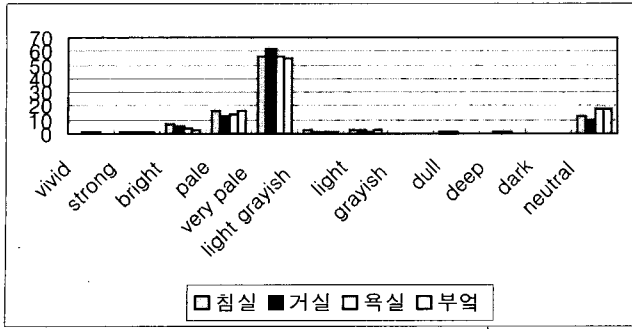
이같은 선호결과를 종합하면, 개별공간에서 선호하는 색상으로 Y, YR계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BG계열이나 P계열에 대한 선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공간별로는 침실과 거실에서의 선호색상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부엌과 욕실에서의 선호색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침실에서는 R계열에 대한 선호가 다른 공간에 비해 높았고, 욕실에서는 B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다.

개별공간에서 선호하는 색조에 대한 결과는 각 공간별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매우 연한(very pale)톤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한(plae)톤, 중성의(neutral)톤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색조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7)Lawton, P., Environment and Aging, Monterey,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0.

8)Renier, V & Pynoos, J, Housing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York: Elsevier, 1992.

(단위: %)



<그림 2> 개별공간별 색조에 대한 선호

이러한 결과는 실내공간의 색채는 사람과 가구 등의 배경색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눈에 피로를 덜 수 있는 색조를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실내환경색채의 계획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2001)⁹⁾의 연구에서는 실내에서의 배경색이 되기 위해선 대체로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높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면서 실내의 색채는 사람들을 보다 뚜렷하게 하기 위해 배경색이 되어야 하며, 이미지의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해 흰색에 가까운 고명도의 색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노인층이 선호했던 색조인 매우연한 톤을 실내의 배경색으로 하는것은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내의 배경색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공용공간별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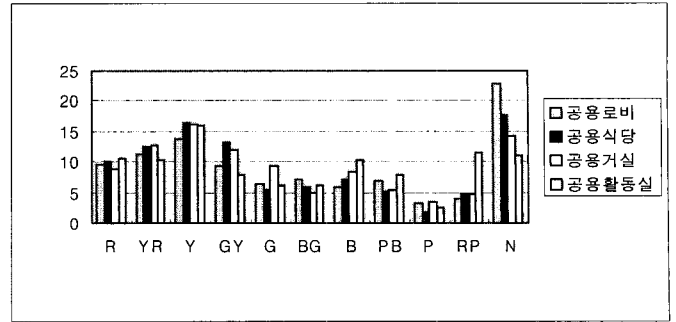
공용공간에 대한 선호색상을 조사하였다. 로비에서의 선호색상으로는 무채색(N)이 2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Y(13.7%), YR(1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다른 색상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로비공간의 색상으로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여 현대적이면서 차분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용식당에서는 무채색N(17.6%), Y(16.3%), GY(13.3%), YR(12.4%)의 순으로 조사되어 로비공간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로비공간에 비해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낮았으며 다양한 색상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공용거실에서의 선호색상은 Y(16.1%)로 가장 높은 선호경향을 나타내 위의 두 공간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채색 N(14.3%), YR(12.7%), GY(12.0%)의 순으로 조사되어 예비노인들이 선호하는 색상의 종류에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공용활동실에서는 Y(15.9%)로 가장 높았고, RP(11.4%), R(10.6%), B(10.2%), YR(1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용활동실은 다른공간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RP나 B색상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미활동이나

9)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 환경색채계획,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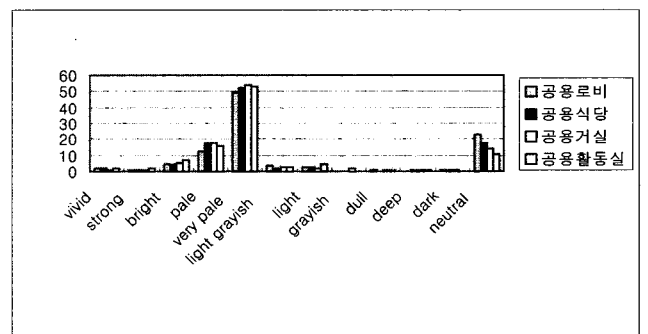
<그림 3> 공용공간별 색조에 대한 선호

공예 등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색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용공간에서 선호하는 색상으로는 무채색N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별공간에서 가장 선호했던 색상인 Y, YR에 대한 선호가 그 다음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노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분위기와 함께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다. 즉 개별공간의 분위기로 한국고전적인 분위기를 선호했고, 공용공간의 분위기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선호했던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현대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색상으로 무채색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로비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용공간에서는 다양한 색상에 대한 선호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계획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공용공간에서 선호하는 색조에 대한 결과는 개별공간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매우연한(very pale)톤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성의(neutral)톤, 연한(pale)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개별공간에서는 연한톤의 비율이 중성톤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공용공간에서는 중성톤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게 조사되었다. 즉, 공용로비와 공용식당은 연한톤에 비해 중성톤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게 조사되었던 반면에, 공용거실과 공용활동실은 밝은 톤에 대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 밖의 다른 색조로는 밝은(bright)톤에 대한 선호가 5%정도 나타났다.

(단위: %)



<그림 4> 공용공간별 색조에 대한 선호

4. 결론

본 연구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마감재 및 색채에 대한 예비노인들의 선호를 파악하여 노인공동생활주택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분위기에 대해 개별공간에서는 한국 고전적인 분위기가, 공용공간에서는 현대적인 분위기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각 공간별 차별화된 실내분위기의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노인들이 선호하는 각 공간별 마감재료들은 바닥재의 경우 침실은 장판, 거실과 부엌은 원목마루, 욕실은 타일, 로비는 석재, 공동식당, 공동거실, 활동실은 모두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가 높아 대부분의 공간에서 원목마루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벽 마감재의 경우 침실, 거실, 부엌은 벽지, 욕실은 타일, 로비는 페인트, 공동식당, 공동거실, 활동실에서는 모두 벽지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나 바닥재와 마찬가지로 물을 사용하는 등의 공간의 성격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벽지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볼 때 예비노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내 마감재료들은 대부분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로서 이는 거주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감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마감재료라 하더라도 마감재의 문양이나 색채 등 많은 디자인적 요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며 마감재의 미끄럼방지 처리나 색상, 명도대비 등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성에 기초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공간 내부마감의 제공방식에 있어서는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이나 노인 스스로 벽지 색상이나 바닥재 등 마감재를 바꿀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병용하여 노인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급화를 원하는 공간으로 개별공간에서는 거실에 대한 선호경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공용공간 역시 공동거실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거실공간에 대한 높은 선호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계획시 다른 공간에 비해 거실공간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색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별공간에서는 선호하는 색상으로 Y, YR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EG, P계열에 대한 선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공용공간에서는 무채색N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공간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선호색조에 대해서는 개별공간, 공용공간 모두 매우연한(very pale)톤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한 톤은 배경색으로는 바람직하나 시각적 인지가 원활치 못한 노인들에게 계단이 시작하는 곳이나 끝나는 곳, 또는 다른 공간으로 진입하는 곳 등에는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여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유의성 검증결과 소득은 실내마감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두드러진 변인이었다. 즉, 실내마감 제공방식, 각 공간별 고급화를 원하는 공간, 고급 실내마감재 사용에 대해 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소득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모델을 고급형, 실용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계획자와 사용자간에 의사소통 없이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주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의견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선택하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공간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태일,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서울거주 노인계층의 성향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10호, 1995.
2. 김혜정, 고령화 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 -공간행태이론을 중심으로-, 경춘사, 2002.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보고서, 1995
4. 모은경, 노년기 상황별 주요구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광주시 중년층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1.
5. 박근형·양우현, 노인을 위한 도시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1996.
6. 박희진·양세화·오찬욱,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통권 36호, 2003.
7. 산업자원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1998.
8. 서기영·이진현,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모형개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8호, 2002.
9.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1998.
10. 신영숙, 선호하는 유료 노인시설주거 디자인을 위한 중산층의 집에 대한 개념,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12호, 2001.
11. 오찬욱·이연숙,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2호, 1993.
12. 이관용, 노인건축-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진사, 2003.
13. 이영심·이상해, 호주 재택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3권 1호, 2002.
14.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3.
15. 홍이경,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6. 홍형욱, 한국의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주거의 대안적 모색, 한국주택학회지, 제7권 2호, 1999.
17. 홍형욱,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 개발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5호, 2001.
18. 홍형욱,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5호, 2001.
19. 제3연령기의 공간환경 연구를 위한 관점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6호, 2002.
20. 홍형욱·유병선, 노후의 일·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5호, 2003.
21. 홍형욱·지은영,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2002.

22. 홍형욱·지은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 -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7호, 2004.
23. Cranz, G. *Evaluating the physical environment: Conclusions from eight housing projects*, In V. Regnier & J. Pynoos(Eds.). *Housing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York: Elsevier, 1987.
24. Kweon, B., Sullivan, W.C. & Wiley, A.R, *Green common spaces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inner-city older adults*. *Environment and Behavior*, 30(6), 1998.
25. Lawton, P., *Environment and Aging*, Monterey,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0.
26. Regnier, V.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and Policy Design\innov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4.
27. Renier, V & Pynoos, J., *Housing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York: Elsevier, 1992.

<접수 : 2005. 2. 28>